

임실봉황인재학당 가시적 성과

5월 첫 중간고사 100점 학생 크게 증가... 성취도·만족도 '쑥'

민선 6기 혁신적인 교육정책으로 꼽히는 임실봉황인재학당이 가시적인 성과를 특별히 거두고 있다.

'교육으로 다시 찾는 임실'을 기치로 개원한 임실봉황인재학당은 임실군을 교육 벽지가 아닌 중심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5일 군에 따르면 지난 5월 치러진 각 중학교 중간고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과목인 국·영·수에서 100점을 받은 학생이 지난해 기말고사와 비교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특히 학업성적이 미진한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아지면서 우수한 일부 학생에게만 국한되어 교육 양극화를 불러온다는 일각의 비판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올해 초 개원한 임실봉황인재학당은 서울 및 경기권의 우수 강사들을 섭

외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질 높은 강사진' 구성에 열을 올려왔다.

이를 바탕으로 국·영·수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요일별 이해력과 학생 특성에 맞춘 눈높이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고입시험이 내신제로 전환돼 중학교 내신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중간고사를 앞둔 지난 4월부터 인문계와 특목고를 목표로 둔 학생을 대상으로 '내신대비 주말 반'을 운영했다.

기존 국·영·수를 비롯해 역사와 과학 수업을 추가 진행하고 중간고사 대비에 맞춘 프로그램을 가동해 내신으로 걱정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크게 덜었다.

또한 버스 2대와 택시 24대를 이용해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맛있고 균형잡힌 급식 제공 등의 시설 교육 복지도 제공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국영수 중심으로 진행된 수업 덕분에 사교육비 부담이 많이 줄었다"며 "이제 내신 대비까지 알아서 해주니 교육 문제는 대도시 부럽지 않다"고 말했다.

봉황인재학당은 개원을 전후해 크고 작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의 교육 성취도가 높아지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김인숙 행정지원과장은 "초등학교 5학년만 되도 교육 때문에 도시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농촌지역 인구유출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교육 때문에 이사하겠다는 문의가 생길 정도로 큰 효과를 보고 있어서 앞으로도 발전적인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변전소 부지, 2020년 10월 준공 예정

육내 변전소로 농공단지 내 건설, 총공사비 200억원 소요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는 154kV 순창변전소 건설사업에 필요한 변전소 부지 및 송전선로 인·출입 최적 부지로 풍산제2농공단지인 풍산면 죽전리 967번지 내로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154kV 순창변전소 건설사업은 순창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 9월말에 신설 계획이 반영되었으며 154kV 신광주-곡성 송전선로 인근 300m 이내로 후보지 4개소를 종합 검토해 최종 결정했다.

154kV 순창변전소 형태는 육내 GIS

형(육내형 변전소), 송전선로는 가공(300m), 지중화(200m)로 공사비는 약 200억원 정도이며 변전소 준공일은 2020년 10월이다.

현재 변전소, 철탑부지는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가 완료되었고 선하지 보상 및 군 계획시설 결정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 용역을 마무리한 후 오는 11월경에 착공할 예정이다.

변전소가 준공되면 농공단지에 고품질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하고 향후 추진계획인 건강·장수 관련 특화농

공단지 조성 및 투자선도지구, 수(水) 체험센터 등 군의 대형사업 완료시 향후 전력수요(70MW)에 사전 대처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각 가정에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사용 전기사용을 원활하게 하여 농가경제의 내구 년한 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변전소 부지 확정에 따라 154kV 변전소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순창지역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운암면 하운암 길라잡이 표지석 세우

임실군 운암면(면장 오광덕)이 하운암 관문에 길라잡이 표지석을 3곳에 세웠다.

지난 5일 운암면은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장을 비롯해 마을주민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운암 변영회주관으로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다.

이번 표지석 기증자는 임실군 운암면에 사는 황이선(우정호산장)씨, 강

성운(일송정가든)씨, 최일권(에프트라산장)씨, 전병관(임실배움의 숲 추진단장)씨 4인이다.

황씨 등은 "고향방향을 위해 밑일이 되겠다"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1200만원의 사재를 털어 기증했다.

하운암은 지형적으로 1965년도에 섬진강댐이 축조되어 수몰의 아픔을 겪은 지역이다. 하지만 도로사정이 타지

역과는 달리 사모오달로 완주 구이방면을 비롯한 임실군 강진면, 그리고 정읍시 산외면과 연결되어 있어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다. 하운암 변영회 김원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하운암 지역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신선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표지석을 세우게 됐다"며 "표지석을 세우는 데 있어 쾌히 성금을 기탁하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기리는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충혼탑에서 거행됐다.

남원시, 현충일 추념식 거행

지리산충혼탑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기리는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충혼탑에서 거행됐다.

이날 추념식에는 강북대 남원시 부시장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시민, 경찰, 군인,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화 및 분향, 육군 7733부대 3대대 장병들의 조총발사, 추모헌시 낭송 등 순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추모했다.

지리산충혼탑은 6·25전쟁 당시 미 전후 치열한 전투로 인해 사망한 군인, 경찰, 민간인 등 7,285명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어 전국 각처에서 보존단체, 학생이 수시로 찾아와 조국을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에 대한 명복을 기리며 감사

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운봉읍 충혼탑, 인월면 향토수호기념비 및 6·25전쟁 무명용사충혼탑, 산내면 충혼불멸비(순직경찰관합동묘지), 수지면 6·25전쟁호국전공비 등 지역 내 충혼탑과 군경묘지에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민족의식 고취와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현충일 추념식을 가졌다.

남원은 예로부터 충효와 호국의 고장으로, 정유재란(1597년) 당시 5만6천명의 왜군에 대항해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하신 민·관·군 의사 1만명의 호국의 얼이 서려있는 만민총의 있으며, 6·25전쟁 당시 및 직후에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13명 선정

남원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모두 13명을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된 13명은 20대에서 40대로, 20대 1명, 30대 11명, 40대 1명이다. 이들 중 2명은 과수, 1명은 축산, 2명은 특용작물, 4명은 채소, 1명은 복합, 3명은 기타 농업분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창업농은 전국적으로 올해 1,168명이 선발되었다. 현재 독립영농경영을 개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으로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된다. 정착지원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되며, 영농경력에 따라 1년씩 지원한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 사업 대상자는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전업적 영농 유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청년창업농의 신청 자격은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로 사업신청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는 자이다. 청년창업농에 선정되면 영농정착지원금, 후계농 자금 또는 귀농자금, 농어촌 공사의 농지 지원,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농기계 임대·수리 호평

순창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마을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농기계수리 사업을 시작해 농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쌍치면 오봉마을에서 농기계 순회수리가 진행 됐으며 농민들은 예취기, 경운기 등 고장난 농기계를 읍내를 방문하지 않고 수리 받았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부터 시작했으며 11월까지 관내 60여개 마을을 방문해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2만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순회수리 운영조례에 의해 무상으로 지원해 농기계 정비기간이 취약한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응급조치 요령과 농기계의 올바른 사용법도 함께 교육해 농업인들이 고장 없이 농기계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경제적 부담과 영농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바쁜 영농철에 읍내 수리점에 가는 불편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면서 "최대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여성가족과 포도 농가 일손돕기

지난 5일 남원시 여성가족과(과장 노경희) 직원들이 금지면 서매리 포도 농가에서 포도 봉지 씌우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이번 농촌일손돕기에는 여성가족과 직원 2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농촌 고령화 심화에 따라 일손이 부족한 포도 농가의 적기 영농을 돕기 위한 것이다. 농가 주인 유원재씨는 "포도 봉지 씌우기는 기계화 작업이 안 되어 일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성가족과 직원분들이 적극 봉사활동에 나서 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성가족과장은 "남원시청 직원으로서 우리 고장을 지키는 농가에 나눔을 실천함과 동시에 직원들 간 화합도 다질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드리겠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